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이생물 교실

이름 : 김벼리

학교 : 기성동 학교

학년 : 6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보건환경연구원

견학 및 체험 내용 :

모의 종를 알고 생김새나 꼬를 잡는 방법을 알았다. 그리고
진드기는 물론 어떤 것인지 알았고 진드기의 종류도 알아보았다. 살인 진드기
등이 물론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빨간집모기, 굼벵이
속의 한복집모기 등등을 알았다. 또 모기 물려 심각한 병을
알고도 있다는걸 알았다. 모기는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장기도 그렇다는 걸알았다(혈액은 없는 모기도 알았다).

느 낀 점 : 모기는 징그러울 줄만 알아서 싫어했는데 모기야

생김새도 다뤄서 신기했다. 진드기도 물론 보고 죽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이었 기쁘다.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미생물 교실

이름 : 주약초등 학교 : 4 학년 : 손혜원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보건 환경 연구원

견학 및 체험 내용 : 진드기와 모기관찰

진드기를 관찰하기전에는 징그러울 것 같았는데 1번 보고나니 계속보게 되었다. 진드기는 다리에 털이 있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둥글둥글했다. 모든 것을 조합할 때 이 진드기는 집먼지진드기 같았다. 집에 있는 진드기라서 조금 보기가 안 좋았다. 그 다음은 모기를 관찰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의 모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를 관찰했다. 주둥이에 줄이 3개 있었다. 날개에는 얼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있는 세균수를 측정하려고 세균배양 슬라이스에 뽕뽕뽕 뺀 후 적었다. 결과는 24 시간 후에 나온다고 한다.

느 낱 점 : 모르는 6학년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도 선생님이 잘 챙겨주어서 즐거웠다.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미생물 교실

이름 : 양가람

학교 : 기성초등학교

학년 : 6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보건환경연구원

견학 및 체험 내용 :

여러 종류의 모기나 진드기에 대해 ppt로 먼저 설명을 받았다.
설명을 받을때 내가 알았던거, 몰랐던것을 알 수있었고, 강아치에게
진드기가 짊어지는데 많은 흥미를 느끼고 하였다.

설명을 끝내고 모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나는 많은 모기중
'중구'를 발견하고 흥미를 느꼈다. 처음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신기하고,
한편으로 모기를 자세히 본것이 처음이어서 새롭고, 신기하고, 조금은
겁나었다. 그래도 다음엔 미생물학 한일이 벌써일주일정도라서
좋은 경험인것 같다.

느 낀 점 : 모기를 자세히 관찰해본것이 처음이라 재밌고, 신기했다,
시간이 있다면 다시와보고 싶다.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환경 체험교실

이름 : 정수빈

학교 : 기성초등학교

학년 : 6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경남 보건 환경 연구원

견학 및 체험 내용 :

처음에 경남 환경 연구원에 도착해서 A반과 B반을 나누고 무엇을 할지 알려주었다.

그중 나는 A반이 있다. A반은 처음에 소음 측정기 체험을 하였다. 그때도 2조, 3조로

나뉘어 있는데 나는 2조였고 수원이, 주원이, 현서, 하영이, 나 이렇게 한같이 소리를

줄러보니 115로 우리 2조가 제일 높았다. 소음 측정하는 거 다음에 벼룩 실험을 하러 왔다.

벼룩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수컷, 암컷에 따라 나뉘어진다. 이것을 듣고 난 후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갔는데 그 실험은 벼룩이 과연 사이타에서 살지 못할지 실험을 해 보았었다.

실험을 할 때 수원이와 같이 벼룩을 사이타에 넣어보았다. 그 결과는,

벼룩은 사이타에서 못살았다. 나는 벼룩이 사이타에서 죽는 이유를 알았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느 낀 점 :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서 좋았고
다음에는 다른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었다.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환경 체험교실

이름 : 정주원 학교 : 기성초등학교 학년 : 6학년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경남} 보건 환경연구원

견학 및 체험 내용 :

제일 처음으로는 모에서 A반, B반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A반은 무엇을 할지 B반은 무엇을 할 지를 배웠다.

나는 A반과 B반중 A반 이었는데 A반은 제일 먼저 소음측정기로 사람이 내는 소음을 측정해봤다. 수변이가 먼저 자기 이름을 말했는데 한 10데시벨 정도가 나올거 같았는데 꽤 42.2가 제일 작고 평균이 60렷으로 나왔다. 또 A반중 3조도 나누어 소리를 잘리었는데 가장 높은게 112데시벨이 나왔다. 그다음으로는 물벼룩을 사이다에 넣어보았다. 물벼룩이 생각했던거 보다 컸다. 지안벼룩 한 조가 되어서 사이다에 물벼룩을 넣어 보았는데 다 죽어서 불쌍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이런 계물 벼룩을 통해 ^{앞으로} 많은것을 알게 될것 같다.

느 낀 점 : ^{아주 작은} 소음이라도 큰 데시벨이 나오니 조용히 해야 겠고 물 벼룩이 불쌍했지만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안되겠다는 생각하고 귀찮았다.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환경 체험 교실

이름 : 김 준 우 학교 : 기성초등학교 학년 : 6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보건 환경 연구원

전학 및 체험 내용 : 소음체험, 물벼룩 생태독성체험

소음 체험에는 소음 측정기라는 중요한 기계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소음, 중간소음 등 여러가지 소리 중에서 우리의 알, 고암을 측정했다. 우리 반에서 거의 비슷하게 111 110 정도의 소음이 나왔다. 5명에서니 정말 시끄러웠다. 우리가 두번째로 한 체험은 물벼룩 생태독성 체험을 했다. 우리는 신기한 물벼룩을 봤다. 물벼룩은 다리, 눈, 알, 항문 등 여러가지 기능이 있고 새끼도 낳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새끼를 이용해서 사이타에 넣어 보았다. 사이타에는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새끼는 바로 어미는 10주 정도 버텼다 신기한 체험들이었다.

느 낱 점 : 과학에는 소음 측정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물벼룩이라는 생물이 물의 나쁜 독성을 받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다. 정말 신기했다.

보건·환경 체험교실 보고서

과 정 명 : 환경체험 교실

이름 : 오 현 서

학교 : 기성초등학교

학년 : 6학년

체험 일시 : 2016 년 6 월 15 일

체험 장소 : 보건환경 연구원

견학 및 체험 내용 :

처음으로 소음측정 하는 것을 배우로 갔다.

우리 일상생활 에서 나오는 소음을 측정하기, 소를 크게질러서 소음을 측정하였다.

소를 크게질러면 거의 비슷한 책이 나왔다. 따라서 생활에서(집에서, 공공장소)

에서 소를 크게 지르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다. 다음으로 물벼룩 을 관찰해 보러갔다. 시미다 에 물벼룩 을 넣어

물벼룩의 상태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여보았다. 시미다에 넣자마자 물벼룩 은

바로 죽어 물에 가라앉거나, 떠있었다. 그만큼 시미다에 있는 산성 염분이

물벼룩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 우리사람 에게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수있었다. 이로서 시미다 나 골라 탄산음료가 들어가있는 음료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였다.

느 낀 점 :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 에 와서 환경체험 을 하여보았

는데 우리환경 의 여러가지 부르는 환경도 관찰할 수있어 신기하였고,

대부분 우리환경에 대해 한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되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